

11/14(화) 열왕기상 8

열왕기상 3:1-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권 초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얼마나 부강하고 강성한 국가였는지를 첫 구절은 보여줍니다(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것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국가들도 이미 자기 왕국의 대외적인 안정과 강화를 위해서 국가 간에 ‘정략 결혼 제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혼인 관계는 비슷한 국격끼리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비슷한 국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일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내부적인 적들을 제거하고 외부적으로는 동맹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확실히 잡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2절,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혹자는 이를 우상숭배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본문의 말씀대로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한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시 처소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솔로몬이 내외적인 국가의 정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어떤 짐승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 양, 염소’ 등의 짐승 ‘일천 마리’를 번제로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일 동안’ 제사를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고 보기 보다는 한번에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천마리의 짐승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아마도 수일에서 수십일 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기브온 산당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산당에서도 동시에 드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브온에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출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아버지 다윗이 행한 올바른 순종의 행위를 고백하게 됩니다(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선조인 다윗의 마음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응답에 기뻐하셨습니다(10-11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함께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게 됩니다(12-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 그가 행한 일천번제의 헌신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한다는 솔로몬 왕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민했다는 흔적도 없이 즉시 ‘지혜’를 구한 것은 그의 집안 환경과 왕권 초기의 순수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와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의 생애와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보다 더 큰 평화와 축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으로서의 정치적 수완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강조한 참된 대장부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왕상 2:2하-3, “..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솔로몬은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네팔을 위한 기도:** 11/3 일 네팔 서부 지역에 강진으로 인해 약 150 명의 사망자와 교회 20 곳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2015 년에도 네팔은 지진으로 인해 9,000 명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 사망 및 부상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하영광 선교사님(인도네시아)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